

##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 마가복음 1:14-28

요절: 마가복음 1: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후 가장 먼저 복음의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는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의미있고 가치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로 키우고자하시는 예수님의 소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미있고 가치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에 얽매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다가 아무 열매 없이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미있고 가치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이시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쓰시고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a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이 말씀은 그 시대 상황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강대국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사하고 잔인하고 음란했습니다. 그의 이복동생 빌립의 아내이자 조카인 헤로디아에 빠져 아내와 이혼하고 그녀를 취했습니다. 요한이 이 일로 책망을 하자 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6:17-29).

이를 볼 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가 얼마나 불의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음란을 행하는데 앞장을 섰고 의인을 감금하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목을 베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가난과 질병으로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탄압을 받고 옥에 갇히면서도 헤롯정부에 반항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리들은 자기 동족을 속여서 로마에 아부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대에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선구자인 요한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촛불을 드셨습니까? 세례요한을 구하기 위해서 서명 운동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시대가 험하다고 좌절하고 은둔생활로 들어가 버렸습니까? 14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중혁명으로 헤롯왕을 몰아낸다고 해서 그 시대 근본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문제는 피상적으로 볼 때 로마에게 식민 통치를 받는 문제, 경제적 빈곤의 문제, 사회정의가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근본문제는 인간들의 죄 문제였습니다. 피상적인 문제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고자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 가운데서도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배워야겠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파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역사를 시작하시면 전한 첫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사단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무엇을 해도 참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곳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에는 생명과 평강이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 모든 어둠과 슬픈 운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마음으로 슬피하며 의지적으로 그 죄에서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서처럼 자신의 비참함이 아버지 집을 떠난데 있음을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는 이처럼 방향을 전환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치 않는 영혼은 멸망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회개치 않은 영혼들에게 멸망이 있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지금이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할 때인데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자꾸 나중에 미룹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어느 날 전략회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에 빠뜨리는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일까 하루종일 논의하였습니다. 거기에서 1등으로 뽑힌 아이디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일 회개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은 즐기고 내일 회개하면 되지. 이것이 바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회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지체하지 말고 바로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신앙의 초심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평생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현재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에 힘써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바다는 직경 20킬로 너비 10킬로에 해당하는 거대한 내륙 호수입니다. 북쪽의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린 물이 흘러내려와 갈릴리 바다에 머물다가 다시 요단강을 타고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물이 맑고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번성하여 어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월척을 낚아서 큰 배도 사고, 언덕 위에 그림같은 집도 짓고,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고, 편안한 노후도 준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가장 소외받고 못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어부라는 직업도 지극히 평범한 하층 계급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단한 꿈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들을 찾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큰 소망을 두고 부르셨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물고기 낚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 낚는 삶을 살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물고기 낚는 삶과 사람 낚는 삶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낚는 삶이 한마디로 어부의 삶이라면, 사람 낚는 삶은 목자의 삶입니다. 물고기 낚는 삶이 살아 있는 물고기를 죽이는 삶이라면, 사람 낚는 삶은 죄의 바다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물고기 낚는 삶이 어부의 상식과 경험을 따르는 삶이라면, 사람 낚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어부의 삶이 궁극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목자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도 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갈릴리 촌구석에서 물고기나 낚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그들이 장차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목자들이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장차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목자가 될 비전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키우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어떤 사람들로 키우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도 있었습니다. 부름 받은 제자들은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연단되지 않은 금광석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불순물도 많고 실수도 자주하였습니다. 또한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배우고 훈련 받았지만 여전히 영적인 세계를 밝히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은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소망을 두시고 함께 하시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천재미술품가 미켈란젤로를 알고 있습니다. 같은 대리석이라도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어가면 뛰어난 예술품이 탄생합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가 커다란 대리석을 보고 “오 놀라운 작품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라고 말하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널려있는 대리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가져다가 쓸모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조각해서 다비드 상을 만들고, 피에타 상을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대리석일지라도 미켈란젤로의 손을 거치면 위대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갈릴리 촌부들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혹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명의 갈릴리

청년들에게 두신 예수님의 비전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두신 비전도 위대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갈수록 좁아지고 근시안이 되어갑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우리를 위대한 목자의 인생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비전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삶의 방향전환을 요구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삶의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한 삶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삶 전체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들의 생업과 가족을 버려두고 떠나야 합니다. 물론 생업과 가족을 버렸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가족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족 관계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주님을 따르는데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한결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순종하며, 언제 순종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윌리엄 A. 워드)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물고기를 잡는데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물고기들이 어느 길로 다니는지, 어떤 먹이를 좋아하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관심사는 무엇인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며 이해하는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죄로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보람되고 귀한 삶은 없습니다. 의사의 직업이 고귀한 것은 그것이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직분은 사람의 영원한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그 고귀함은 의사의 직업과 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삶은 고귀한 줄 알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인정되고 많은 돈을 받지만,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목자의 삶은 그 참다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여 사회적인 지위도 낮고 돈도 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삶만큼 보배롭고, 아름답고, 가치있고, 보람된 삶은 없습니다. 다니엘서 12: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 양들로 인해 흘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볼 때 부르심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일방적인 풍습은 제자가 스승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자신이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목자생활을 하면서 염려 근심이 많습니다. ‘나는 목자체질이 아닌가?’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현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고, 마침내 위대한 사도가 되기까지 책임져 주셨

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도 혹 실패하면 우리의 실패도 만회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18)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 낚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부르시니 그들은 그 아버 세베대를 샀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 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기대와 요구와 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손익 계산을 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실리적인 사고에 물이 들어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유익을 따져 보는 자세가 있습니다. 신중하고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너무 따지다 보면 귀한 것을 놓치는 경우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어떤 희생도 불사하는 참으로 용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생활을 하다가는 손해보지 않을까 계산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용기있는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학교에 믿음으로 입학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학교요, 생명과 기쁨을 주는 학교입니다. 또한 이 학교는 쓸모 없는 자를 쓸모 있는 자로 키우는 학교입니다.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고 이 학교에 믿음으로 입학한 자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동상에 이런 내용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messenger of God(하나님의 사자), follower of Christ(그리스도의 제자), friend of korea(한국의 친구). 언더우드가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캠퍼스 곳곳을 지나가시면서 일군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새롭게 이 부르심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당시에 동서 교통의 요충지로서 인구가 조밀하고 어업이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이 곳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것은 놀라움과 경이로 가득차서 한동안 정신이 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놀라게 된 이유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순종을 동반하는 것으로서 압도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청중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더 나아가 악령의 세력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달리 권세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이었을까요?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에게 자기들도 지키기 힘든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쳤습니다.(7장) 율법의 정신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들은 율법의 정신은 무시하고 율법의 규례로 사람들을 얽어매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주로 "~을 하지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는 듣기만 해도 부담이 되었고 졸음이 왔습니다. 또 그들은 형식과 틀에 얽매어 구태의연하였으며 중언부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선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못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쉽게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의 규례나 장로들의 유전보다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들의 심령을 찢어 찢습니다(히4:12).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눌린 자에게 참 영혼의 위로와 쉼을 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 심령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악령의 세력을 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희망이 솟고, 마음속에서 뭔가가 시원스럽게 뚫리는 것을 느꼈으며,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권능의 역사가 확신되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길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빛 앞에 드러나듯이 드러났습니다. 회당에 귀신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속에 있는 귀신의 정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온전해졌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심히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도 굴복시키는 영적인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더러운 귀신(23)”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들로서 영적인 힘으로써만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성령의 검입니다(엡6:17). 하나님의 말씀은 악령의 세력을 파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죄들은 인간내면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들은 “더러운 귀신들”이 심어준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지런히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래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길임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사람들 심령에 도사린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을 닮은 목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권위 있는 말씀의 종들이 되어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